

# 《同文類解》 상업언어 연구\*

강용중\*\*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同文類解》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 2. 연구방법
  - III.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분포
    - 1. 표제어 분류
    - 2. 다른 유해류 역학서와의 상업어휘 비교
    - 3. 《同文類解》의 상업어휘와 분류체계
  - IV.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풀이
  - 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司譯院<sup>1)</sup>은 잘 알려진 대로 《老乞大》나 《朴通事》와 같은 외국어 학습서를 간행했다. 그러나 이 기관의 더 큰 업무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등 인접국의 언어도 다루고 이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중국어를 漢語, 만주어를 淸語, 몽골어를 蒙語, 일본어를 倭語로 각각 지칭하기도 했다.

이상의 기술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역원의 간행저작 중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94).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1) 司譯院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외교업무의 보조와 역관을 배양하던 기구이다. 漢語, 淸語, 蒙語, 倭語 등 四學을 관장했다.

흥미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유해류 역학서이다. 《老乞大》나 《朴通事》는 회화류 역학서로 분류할 수 있다면 유해류 역학서는 어떤 종류의 책일까? 類解는 각 언어의 어휘를 類와 門별로 정리한 분류어휘를 풀이(解)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2008년부터 유해류 역학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다룬 책은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類釋》 등이며, 주제는 이들 책에 수록된 상업어휘들이다. 앞서 든 세 책은 중국어 학습용 유해류 역학서이며, 《方言類釋》은 漢語, 淸語, 蒙語, 倭語를 망라하는 방대한 다국어 분류사전이다.

본고는 이들 시리즈 연구와는 달리 비교적 특수한 語種인 만주어 유해류 역학서인 《同文類解》를 대상으로 그 중의 상업어휘를 다루고자 한다. 분류어휘사전을 다루는 연구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록어휘의 분포, 표제어의 특징, 풀이의 특징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가 한 두 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여러 판종을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간행해 이들 판종 간의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同文類解》<sup>2)</sup>를 대상으로 수록어휘의 분포, 표제어의 특징 그리고 판종 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풀이의 특징이나 난해 어휘의 풀이도 함께 진행한다.

## II. 《同文類解》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는 중국어 학습(漢學)을 예로 들면 회화서인 《老乞大》, 《朴通事》 등의 학습에서 어휘 확장을 위한 참고 사전으로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譯語類解》, 《華語類抄》가 있으며 司譯院에서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만주어는 만주족이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던 淸朝와의 대외관계의 수요에 따라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同文類解》는 1748년(영조 24) 玄文恒이 편찬한 만주어 어휘집이다.

조선 중기 이후 매우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았으며 만주어 학습을 위한 회화서<sup>3)</sup>나 유해류 역학서<sup>4)</sup>가 다수 출현하기에 이른다. 우리 학계의 그간의 관심은 주로 회화류 역학서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유해류 역학서에 대해서는 국어학, 만주어학, 일본어학, 몽골어학, 중국어학의 영역에서 각각 분산적으로 연구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비교적 중요한 것은 유해류 역학서의 출현과 그 배경에 관한 것이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最古의 유해류 역학서는 《譯語類解》이며 이 책은 중국어 학습용 분류사전인 《譯語指南》(1478)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책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출현 배경과 본고에서 다루는 淸學(만주어 학습)의 유해류 역학서는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가?

우선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출현은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1.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외교적 필요에 의해 譯學이 중시되었으나 자세한 기록이 많지 않고, 다만 고려시대 通文館(충렬왕2년, 1276)을 설치하고, 고려 말에 吏學教授(공양왕 1년, 1389)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역학기구나 인재교육 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많은 교재나 참고 서적이 출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류는 전체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기초를 형성하였다. 2.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역관이 배출된 것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여러 語種의 대역 분류사전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烏雲高娃(2015)는 〈元明清蒙漢合璧辭典及其對朝鮮“類解書”的影響〉이라는 글에서 원명청대의 다언어 분류사전이 조선의 유해류 역학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다언어 분류사전의 편찬에는 2종 이상의 언어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선정에서 고도의 어휘 분류 작업이 수반되므로 현지의 언어(예를 들면 북경의 중국어, 심양의 만주어, 카라코쿰의 몽골어 등)를 개념어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할 것은 조선시대 사역원의 역관이 실제조사를 한다든지 3종 이상의 語種을 연결하여 완결적인 다언어 분류사전을 편찬하기란 녹록치 않은 작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물며 사역원에서 몽골어 대역사서인 《蒙語類解》를 편찬할 때는 몽골족의 유민은 있었지만 元代와 같은 대 제국이나 표준어로 지칭할 만한 언어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烏雲高娃의 論斷은 많은 검증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긍하지 않을

3) 만주어 회화교재로는 《淸語老乞大》, 《三譯總解》, 《八歲兒》, 《小兒論》 등이 있다.

4) 만주어 유해류 역학서에는 《同文類解》(1748), 《漢淸文鑒》(1779) 등이 있다.

수 없다.

烏雲高娃는 논문에서 중국에서의 대형 분류사전은 원대에 편찬된 蒙漢 대역사전인 《至元譯語》로 보고, 明代에 이르러서는 《華夷譯語》와 《韃靼譯語》 및 《登壇必究》, 《武備志》, 《盧龍塞略》에 수록된 ‘譯語’ 등으로 계승되고, 나아가 清代에는 《禦制滿洲·蒙古合璧清文鑒》, 《禦制滿蒙文鑒》, 《禦制滿珠<sup>5)</sup>·蒙古·漢文三合切音清文鑒》, 《禦制四體清文鑒》, 《禦制五體清文鑒》 등으로 실로 다양하고 거대한 분량으로 확장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淸學과 관련한 만주어 연구와 만주어 유해류 역학서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앞에 든 清代의 《禦制滿洲·蒙古合璧清文鑒》 이하 제 서적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 만주족은 중원에 진입하여 淸을 건국하고 ‘同文之治’를 주창하였다. 즉 漢文化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만주언어를 중국어와 대응시켜 연구하게 된 것이다. 또 기존의 몽골어 연구도 대역어 사전으로 지속적으로 간행하기에 이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편찬된 어휘들이 어느 어종을 막론하고 구어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대역사서들은 서면어를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어로 소통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어사 연구나 중국어역사어휘학의 어휘계통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시기의 다어종 대역사서의 중국어 표제어는 각 시기의 공시태 어휘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록 사역원의 설치와 운영이라는 대내적 조건, 중국으로부터의 좋은 참고자료의 유입(또는 도입)이라는 대외적 조건 이외에 당시 창제되었던 훈민정음의 작용이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어종 대역사서에는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가 다 한글로 당시의 음(음성)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記音 수단이 부족했던 중국어나, 현재의 국제음성 기호와 같은 기음법이 없었던 당시에 한글은 이미 동북아 언어의 공통 기음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본고의 텍스트인 《同文類解》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林毅(2011: 28-32)는 《同文類解》의 중국어 표제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임씨는 《同文類解》의 표제어가 동일 계열의 《漢清文鑑》보다 구어성분을 더 수록하고 있으며, 표제어 대부분이 중국 북방의 ‘漢兒語言’의 어휘로 보았다. 그리고 《同文類解》 출

5) 《滿洲源流考》: 「以國書考之, 滿洲本作‘滿珠’, 二字皆平讀。」

간 전에 지금은 失傳된 《同文類集》<sup>6)</sup>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英祖24년(1748) 淸學 訓長 玄文恒이 《淸文鑑》, 《大清全書》, 《同文廣彙》 등의 중국서적을 참고하여 6년 만에 간행했다고 했다.<sup>7)</sup> 《同文類解》에 수록된 중국어 어휘의 특징으로는 1. 만주족과 관련한 정치, 군사, 문화 용어가 대량 수록 된 점(貝勒, 覺羅 등), 2. 滿洲語-中國語 언어접촉 이후 중국어로 수용된 새로운 어휘(新詞)의 수록(邇邊, 馬勺 등), 3. 북방(동북-북경: 幽燕官話)방언 중심의 생생한 근대중국어 구어어휘의 수록(笑印, 山裏紅 등), 4. 만주어 對譯의 필요에 의한 對譯滿洲語 어휘의 수록(映謝, 津頭 등), 5. 조선 역관의 母語 영향에 따른 중국어에 부합하지 않은 표제어 또는 사역원 역학서의 관용적 어휘의 수록(東開了, 同生 등) 등으로 개괄하고, 결론적으로 《同文類解》에 수록된 어휘가 아주 분명한 구어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중국어의 공식적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同文類解》의 來源과 언어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同文類解》는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중국의 다어종 분류어휘 사전을 참고해 우리의 문자인 한글로 주음한 중국어(표제어)-만주어(주음)-한글(뜻)의 형식으로 편찬된 유태류 역학서이다.

국내의 조선시대 만주어 연구와 《同文類解》를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sup>8)</sup>

閔泳珪(1956)와 성백인(1970)에서는 《同文類解》의 해제를 달았고, 연구동(1995)에서는 《同文類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蒙語類解》와 표제어의 비교를 진행했다. 성백인(1994)에서는 《同文類解》에 영향을 준 중국의 대역사서를 추적했으며, 연구동(2006, 2012)에서는 각각 《同文類解》를 활용하여 만주어의 친족 명칭과 색채어를 연구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김유범 등(2014)

6) 肅宗17년(1691) 淸學 譯官 李海, 吳相采, 鄭萬濟 등이 목판으로 간행한 만주어 분류 사전이다.

7) 《同文類解》 跋文에 「本學訓長玄同樞文恒既然有意於斯, 得《淸文鑑》、《大清全書》、《同文彙書》等書, 專心用工釐正以正之閱。六寒暑而編成焉, 名之曰《同文類解》。」라고 했다.

8) 국내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주어 분류사전으로 아래 7종이 있다(연구동, 2012:64).

同文物名類集(1661 ?)	滿漢類書(1700)	御製淸文鑑(1708 序)
音漢淸文鑑(1735)	同文類解(1748)	御製增訂淸文鑑(1771 序)
漢淸文鑑(1779?)		

에서는 만주어 사전편찬을 위한 《同文類解》의 활용에 대해 연구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표제어인 당시의 중국어 구어 어휘 성분의 분석이나 특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바로 《同文類解》의 한 분류체계인 ‘買賣門’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업관련 전문어휘로 규정하고 연구하기로 한다.

## 2. 연구방법

본고는 《同文類解》(홍문각, 1995)를 대상으로 그 중의 한 部類인 ‘매매’문을 대상으로 수록어휘의 분포, 상업어휘의 분류, 난해어휘의 풀이 등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수록 어휘의 분포는 《同文類解》의 상업어휘의 전모를 소개하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해류 역학서 9종을 통해 《同文類解》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별하여 서술할 것이다. 9개의 서로 다른 판중에 수록된 상업어휘 간의 수록양상의 대비를 통해 《同文類解》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간의 유해류 역학서 연구에서 보기 드문 연구방법이다. 만약 이 대비에서 구어의 변화나 상용사 체계의 변동을 관찰할 수 있다면 중국어사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체 상업어휘 자체의 증감에도 유의하여 《同文類解》에서만 보이는 상업어휘를 뽑아내어 그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同文類解》의 간행시기에 중국 상업사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업어휘의 분류는 상업거래의 중요한 단계에 따라 《同文類解》에 수록된 어휘들을 귀납하여 전체 상업어휘의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同文類解》의 상업어휘가 전반적인 상업의 제 측면을 어떻게 포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국어나 《同文類解》 발간 당시의 근대중국어 어휘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어려운 단어나 특이한 단어에 대해 풀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어휘학에서 어휘의미의 풀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자, 의미를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휘풀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Ⅲ.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분포

#### 1. 표제어 분류

《同文類解》에 수록된 전체 부류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 ▲上卷

1. 天文 2. 時令 3. 地理 4. 人倫 5. 人品 6. 身體 7. 容貌 8. 氣息 9. 性情  
10. 言語 11. 動靜 12. 人事 13. 宮室 14. 官職 15. 官府 16. 城郭 17. 文學  
18. 武備 19. 軍器 20. 政事 21. 禮度 22. 樂器 23. 孕產 24. 梳洗 25. 服飾  
26. 飲食

##### ▲下卷

27. 田農 28. 米穀 29. 菜蔬 30. 果品 31. 疾病 32. 醫藥 33. 喪葬 34. 寺  
觀 35. 佃漁 36. 器具 37. 匠器 38. 舟車 39. 鞍轡 40. 算數 41. 珍寶 42. 布  
帛 43. 買賣 44. 爭訟 45. 刑獄 46. 國號 47. 戲玩 48. 罵辱 49. 飛禽 50. 走  
獸 51. 水族 52. 昆蟲 53. 樹木 54. 花草 55. 雜語

즉 상권에는 26개의 부류에 2,448개의 표제어가 있으며, 하권에는 29개의 부류에 2,352개의 표제어가 있다. 이를 합하면 총 55개 부류, 4,80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업어휘는 바로 하권 43의 買賣이다.

그렇다면 《同文類解》에 반영된 상업어휘로는 어떤 어휘들이 표제어로 채택되었나? 다음은 《同文類解》의 71개 상업어휘이다.

買了[182] <sup>9)</sup>	賣了[182]	做買賣[182]	買去[182]
來買[182]	價錢[182]	價直[182]	價高[182]
價貴[182]	價相等[182]	一倍[182]	價賤[182]
狠賤[182]	吆喝着賣[182]	補錠[183]	兌換[183]
貫[183]	雇了[183]	賒着來[183]	本錢[183]
盤費[183]	工錢[183]	利錢[183]	月利錢[183]
息利[183]	有利的[183]	丟利[183]	撚鬪[183]
均勻[183]	分了[183]	分開[183]	衆共分[183]

9) 이 숫자는 출현 페이지이다.

對半分開[183]	賺吃[183]	按人派分[184]	減多增損[184]
造化[184]	大造化[184]	鋪子[184]	店房[184]
當舖[184]	典當[184]	典當了[184]	還當[184]
代徵[184]	債[184]	放債[184]	出債[184]
文契[184]	做保人[184]	還償[184]	抵兌還償[184]
產業[184]	豐足[184]	富[185]	富啊[185]
富盛[185]	貴[185]	福[185]	福分[185]
充積[185]	貧[185]	卑賤[185]	窮[185]
貧窮[185]	窘[185]	餓[185]	餓着[185]
餓了[185]	糊口[185]	敗[185]	

앞의 수록 어휘로 볼 때 이들 표제어가 중국어 구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각 어휘들에 대한 우리말 풀이는 한글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중 일부는 ‘-’로 표시해 중국어 표제어와 같은 어휘를 우리가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조목도 있다.

貫 本錢 典當 豐足 富 貴 福 卑賤 糊口

그리고 窮과 窘은 각각 ‘-하다’, ‘-하다’로 풀이한 것도 특징적인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풀이한 예이다.

減多增損: 折長補短 하다

充積: 家業充滿 하다

《同文類解》에 보이는 상업어휘를 음절 형식으로 나누어 볼 때 단음절 어휘는 다음의 10개이다.

貫, 債, 富, 貴, 福, 貧, 窮, 窘, 餓, 敗

이 단음절어들은 당시의 어휘 계통에서 상용사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구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대역사서에서 채택한 개념어일 가능성이 더 크다.



삼음절어로는 아래의 9개가 있다.

做買賣, 價相等, 賒着來, 月利錢, 有利的, 衆共分, 大造化, 典當了, 做保人

이들을 분석해 보면, 做買賣에서 買賣가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做를 결합시켜 동사형으로 표제어를 삼은 것이고, 價相等은 전형적인 주위구조이다. 賒着來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조사가 동사 뒤에 연용된 경우로 만주어의 특성을 반영한 표제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做保人의 경우도 이 예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有利的와 典當了的의 的과 了는 조사로 만주어의 조사계통과의 호응을 위해 음절이 3음절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한다. 衆共分은 편정구조로 부사어(狀語) 衆共이 동사 分을 꾸미는 구조이며, 月利錢은 단순명사이다. 大造化는 특이하게도 造化라는 표제어가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수록된 표제어이다.

사음절어로는 총 5개가 보인다.

吆喝着賣, 對半分開, 按人派分, 減多增損, 抵兌還償

여기의 다섯 개 표제어 중 吆喝着賣는 ‘외치면서 팔다’의 의미로 동태조사 着的 전후로 각각의 동사가 출현한 구조이고, 나머지는 사음절로 된 상업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의 47개는 이음절어이다. 이음절어의 전형적인 경우를 제외한 특수한 표제어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買了 등의 ~了나 買去의 ~去, 富啊의 ~啊, 餓着的 ~着 등은 삼음절 표제어 賒着來, 有利的, 典當了 등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중국어 구어에 보이는 다양한 助詞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餓, 餓着, 餓了 또는 富, 富啊 그리고 典當, 典當了 등은 단어(餓)와 변형어구(餓着, 餓了)가 같이 수록된 사례이다. 이 특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이 현상은 아마도 만주어가 알타이어로써 다양한 조사체계가 발전했고, 《同文類解》에서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造化와 大造化, 分了와 分開 등이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음절별 수록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다른 유해류 역학서와의 상업어휘 비교

다음으로는 조선시대 간행된 다른 8종의 유해류 역학서와 표제어를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방법으로 구어의 변화나 상용사 체계의 변동을 관찰하고, 전체 상업어휘 자체의 증감도 알게 해 줄 것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로는 다음 9종이 있다.

1. 《譯語類解》(1690) 56개<sup>10)</sup>
2. 《同文類解》(1748) 71개
3. 《蒙語類解》(1768) 72개
4. 《譯語類解·補》(1775) 44개
5. 《方言類釋》(1778) 91개 〈買賣 73개(중주3); 借貸 18개(중주2)〉
6. 《漢清文鑑》(1779) 63개 〈貿易 44개; 當借 19개〉
7. 《倭語類解》(1783年以後) 34개
8. 《蒙語類解·補編》(1790) 23개
9. 《華語類抄》(1883) 75개

이들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상업어휘는 대개가 [買賣]라는 類門으로 분류되어 있고, 5와 6의 《方言類釋》과 《漢清文鑑》에서는 각각 買賣, 借貸 또는 貿易, 當借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이들 자료 중 중국어 학습용 사전은 1. 《譯語類解》, 4. 《譯語類解·補》, 9. 《華語類抄》 등이며, 만주어 학습용 사전은 2. 《同文類解》, 6. 《漢清文鑑》 등이고, 몽골어 사전은 3. 《蒙語類解》와 8. 《蒙語類解·補編》이다. 그리고 7. 《倭語類解》는 일본어 학습용 사전이다. 마지막으로 《方言類釋》은 漢語, 淸語, 蒙語, 倭語를 함께 수록한 다국어 사전이다.

그렇다면 중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가 가능한가? 의견상 어종이 다르므로 어떠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 9종의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가 모두 당시

10) 앞의 목록에서 각书名 뒤 괄호 안의 숫자는 간행년도이고, '~개'라고 한 것은 그 책에 수록된 상업어휘들이다.

의 중국어-엄밀하게 말해 ‘구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1. 《譯語類解》, 4. 《譯語類解·補》, 9. 《華語類抄》 등의 중국어 학습용 사전 이외의 자료도 적어도 표제어에 한해서는 상호 비교연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출간 당시의 중국어 구어 어휘의 면모까지도 살펴 볼 수 있다.

《同文類解》 수록어휘의 판중간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768년 간행된 《蒙語類解》의 그것과 상당히 많은 어휘가 중복된다는 점이다.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상업어휘 수록 갯수는 각각 71개와 72개이다. 이중 《同文類解》의 아래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59개가 《蒙語類解》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大造化[1748](同文184)  
 代徵[1748](同文184)  
 利錢[1748](同文183)  
 盤費<sup>11)</sup>[1748](同文183)  
 富盛[1748](同文185)  
 餓了[1748](同文185)  
 按人派分[1748](同文184)  
 衆共分[1748](同文183)  
 充積[1748](同文185)  
 敗[1748](同文185)  
 還償[1748](同文184)  
 價高[1748](同文182)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우선 당시의 만주어는 청나라의 제1언어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몽골어는 이미 영향이 미미한 나라의 언어이므로 비록 交隣政策으로 《蒙語類解》와 같은 몽골어 사전을 만들었지만 표제어의 선정에서 만주어 유해류 역학서인 《同文類解》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두 책에 보이는 표제어의 일치도가 이렇게 높은 사실에서 《蒙語類解》가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同文類解》는 앞에서 제시한 9종의 유해류 역학서에서 보듯이 《譯語類解》 다음

11) 이 어휘는 《蒙語類解》에 동일한 의미의 ‘盤纏’으로 교체되었다.

으로 간행시기가 이른다. 게다가 《譯語類解》가 중국어 학습서라면 《同文類解》는 만주어 학습서이므로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대의 사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앞에 간행된 《譯語類解》의 표제어는 얼마나 계승했는지는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 전체의 영향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전하는 첫 번째 사전인 《譯語類解》와의 표제어 비교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譯語類解》에 수록된 상업어휘는 56개이다. 그러나 60년 뒤에 간행된 《同文類解》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대로 그중에 두 개만 수록되어 있다.

역/동/몽(1개)

店房〔1690〕(譯語137), 〔1748〕(同文184), 〔1768〕(蒙語151)

역/동/몽/방/화(1개)

鋪子〔1690〕(譯語137), 〔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8〕(方言-買賣20-1), 〔1778〕(方言-買賣20-1), 〔1883〕(華語39-1)

店房의 경우 《蒙語類解》 뒤로는 제외되었고, 鋪子의 경우 반대로 19세기 《華語類抄》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譯語類解》의 補遺편인 《譯語類解·補》와 비교하기로 하자. 《譯語類解·補》는 《同文類解》 바로 다음에 나온 사전이므로 이들 간의 관련성은 중요하다. 즉 《譯語類解·補》가 얼마나 《同文類解》의 표제어를 수용했는가하는 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몽/역보(4개)

做買賣〔1748〕(同文182), 〔1768〕(蒙語149), 〔1775〕(譯補328)

一倍〔1748〕(同文182), 〔1768〕(蒙語150), 〔1775〕(譯補328)

對半分開〔1748〕(同文183), 〔1768〕(蒙語151), 〔1775〕(譯補328)

雇了〔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5〕(譯補330)

앞에서 보는 대로 《譯語類解·補》에서는 이상의 네 개를 채택하여 표제어로 삼았으며, 이 네 개의 어휘는 이후의 사전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개는 같

은 경로를 통해 《方言類釋》에까지 채록된 것들이다.

동/몽/역보/방(4개)

還當[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5](譯補329), [1778](方言-借貸22-1)

本錢[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5](譯補329), [1778](方言-買賣21-2)

月利錢[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5](譯補329), [1778](方言-借貸22-1)

文契[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5](譯補329), [1778](方言-借貸22-1)

그리고 이후의 《漢清文鑑》과 《華語類抄》에까지 채록된 것은 아래의 當舖가 있다.

동/몽/역보/방/한/화(1개)

當舖[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5](譯補329), [1778](方言-借貸22-1), [1779](漢清-當舖63B), [1883](華語39-2)

이로써 《譯語類解·補》가 《同文類解》의 총9개의 표제어를 채택하여 표제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方言類釋》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앞에서 《譯語類解·補》와 같이 수록한 還當, 本錢, 月利錢, 文契, 當舖 등과 《譯語類解》를 반영한 鋪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제어가 있다.

동/방(1개)

價高[1748](同文182), [1778](方言-買賣20-2)

동/몽/방(2개)

出債[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8](方言-借貸22-1)

分開[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8](方言-買賣21-1)

동/몽/방/한(1개)

放債[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8](方言-借貸22-1), [1779]  
(漢清-當舖64A)

앞의 價高, 出債, 分開, 放債 등을 합하면 《方言類釋》에서는 《同文類解》 중 9개의 표제어를 수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漢清文鑑》은 용도나 성격에서 《同文類解》와 가장 유사한 만주어 사전이자 유해류 역학서 중 수록 어휘가 가장 많은 책이다. 이 두 사전 간의 표제어 반영 정도는 어떠한가? 앞에서 본 일치하는 표제어로는 放債, 當舖 등이 있고, 그밖에도 다음의 5개(貴, 兌換, 有利的, 工錢, 債)가 있다.

동/몽/한(4개)

貴[1748](同文185), [1768](蒙語185), [1779](漢清-貿易16B)  
兌換[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9](漢清-貿易17A)  
有利的[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9](漢清-貿易17B)  
工錢[1748](同文183), [1768](蒙語150), [1779](漢清-貿易17B)

동/몽/한/왜(1)

債[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79](漢清-當舖64A), [1783](倭語56-1)

이상의 7개 중복 어휘 중 當舖를 제외하고는 중국어 사전에는 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어 학습사전인 《倭語類解》에서는 앞에서 든 債 이외에 아래의 典當, 貧, 富 등이 있다.

동/몽/왜(3개)

典當[1748](同文184), [1768](蒙語151), [1783](倭語56-1)  
貧[1748](同文185), [1768](蒙語185), [1783](倭語56-2)  
富[1748](同文185), [1768](蒙語185), [1783](倭語56-2)

다른 유해류 역학서와 비교할 때 관련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蒙語類解·補編》과 일치하는 어휘는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말에 간행된 《華語類抄》에 반영된 것은 앞의 예들에서 보듯 當舖, 鋪子 등 2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同文類解》의 영향관계

譯語類解	蒙語類解	譯語·補	方言類釋	漢清文鑑	倭語類解	蒙語·補編	華語類抄
2	59	9	9	7	4	0	2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蒙語類解》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영향을 받았고, 간행 시기가 가까운 《譯語類解·補》, 《方言類釋》, 《漢清文鑑》 등은 《同文類解》의 71개 상업어휘 중 10% 이상씩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 3. 《同文類解》의 상업어휘와 분류체계

《同文類解》에 수록된 전체 상업어휘는 상업 세계의 구성에 따라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졸고(2010b)에서는 《譯語類解》 '買賣'門의 어휘를 상업 활동과 관련된 하위 범주를 유의어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하고 귀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았다.

-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 B: 시장
- C: 점포의 유형과 客商이 묵는 숙소
-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포식
- E: 상업용 운반 수레
- F: 가격
- G: 상거래
- H: 금전 이윤
- I: 거래
- J: 상품의 산지

K: 상품에 대한 평가

L: 세금이나 중계료

이 절에서는 위의 분류체계에 따라 《同文類解》의 상업어휘를 재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同文類解》에 수록된 상업어휘가 어떠한 상업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전에 수행한 《譯語類解》의 분류결과와도 비교해 두 사전의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同文類解》의 상업어휘는 買了, 賣了, 做買賣, 買去, 來買, 價錢, 價直, 價高, 價貴, 價相等, 一倍, 價賤, 狠賤, …… 등의 순서로 나열 되어있다. 필자가 보기에 는 앞에 보이는 [買了, 賣了, 做買賣, 買去, 來買, 吆喝着賣] 등은 위의 분류체계에서 'G: 상거래'에 속하고, [價錢, 價直, 價高, 價貴, 價相等, 一倍, 價賤, 狠賤] 등은 'F: 가격'에 속한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同文類解》의 어휘배열 순서는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선 배열 순서에 따라 분류체계와 대비해 보도록 하자.

이어서 출현하는 [補錠, 兌換, 賁, 雇了, 賒着來] 등은 'G: 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앞의 [買了, 賣了, 做買賣, 買去, 來買] 등의 단순 매매의 의미가 아닌 판매방식, 교환, 빚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출현하는 [本錢, 盤費, 工錢, 利錢, 月利錢, 息利, 有利的, 丟利] 'H: 금전 이윤'에 속한다. 그중 [本錢, 盤費, 工錢] 등은 비용, 자본 등의 의미를, [利錢, 月利錢, 息利, 有利的, 丟利] 등은 이윤의 영역에 속하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撚鬪, 均勻, 分了, 分開, 衆共分, 對半分開, 賺吃, 按人派分, 減多增損] 등 중에서 [賺吃, 減多增損]의 두 표제어를 제외하고는 다 분배와 관련 되어 있다. 이 분류체계는 《譯語類解》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아마도 《同文類解》에 수록된 상업어휘 중 가장 특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게다가 7개가 수록되어 전체 어휘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 분류체계의 어휘가 다량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造化, 大造化]에서 造化는 '운이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잠정적으로 'G: 상거래'의 하위분류로 귀납한다.

다음에 보이는 [鋪子, 店房, 當舖] 등은 'C: 점포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典當, 典當了, 還當, 代徵, 債, 放債, 出債, 文契, 做保人, 還償, 抵兌還償] 등은 《譯語類解》에는 보이지 않는 ‘전당(典當)’관련 표제어 들이다. 명청대의 전당업은 단순히 물건을 전당잡히고 돈을 꾸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은행 업무에 준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상기 표제어들은 여기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류어 어휘가 1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同文類解》의 가장 특징적인 어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머지 표제어들은 다음과 같다.

[產業, 豐足, 富, 富啊, 富盛, 貴, 福, 福分, 充積, 貧, 卑賤, 窮, 貧窮, 窘, 餓, 餓着, 餓了, 糊口, 敗]

일견 이 어휘들은 상관성도 떨어지고 상업어휘로 분류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필자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처지나 형편과 관련이 있다. 우선 첫 표제어 [產業]은 우리말로 ‘가산(家産)’으로 풀이 했다. 이 중심어를 가지고 이하의 모든 단어를 연결시키면 가산의 정도에 따른 여러 경제적 처지를 기술하는 어휘의미가 보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이상의 어휘들은 구체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상업용어로 분류하기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앞의 《譯語類解》 상업어휘 분류체계에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 B: 시장
- C: 점포의 유형: [鋪子, 店房, 當舖]
-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
- E: 상업용 운반 수레
- F: 가격: [價錢, 價直, 價高, 價貴, 價相等, 一倍, 價賤, 狠賤]
- G: 상거래:
  - G1: [買了, 賣了, 做買賣, 買去, 來買, 吆喝着賣]
  - G2: [補錠, 兌換, 貰, 雇了, 賒着來]
  - G3: [造化, 大造化]
- H: 금전 이윤: [本錢, 盤費, 工錢, 利錢, 月利錢, 息利, 有利的, 丟利]
- I: 거래

- J: 상품의 산지  
 K: 상품에 대한 평가  
 L: 세금이나 중계료  
 M: 분배: [撚鬪, 均勻, 分了, 分開, 衆共分, 對半分開, 按人派分]  
 N: 전당: [典當, 典當了, 還當, 代徵, 債, 放債, 出債, 文契, 做保人, 還償, 抵兌還償]  
 O: 경제상황: [產業, 豐足, 富, 富啊, 富盛, 貴, 福, 福分, 充積, 貧, 卑賤, 窮, 貧窮, 窘, 餓, 餓着, 餓了, 糊口, 敗]

이상의 분류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譯語類解》의 상업어휘와 비교할 때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B: 시장',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 'E: 상업용 운반 수레', 'I: 거래', 'J: 상품의 산지', 'K: 상품에 대한 평가', 'L: 세금이나 중계료' 등 8개의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同文類解》의 상업어휘는 상대적으로 포괄범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2. 'G: 상거래'의 하위분류가 생성되어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현상이 존재한다. 3. 《譯語類解》에는 보이지 않던 'N: 전당' 관련 어휘가 상당 수 반영되었다. 이는 아마도 상업세계의 변화 및 다양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밖에 'M: 분배'와 'O: 경제상황'의 어휘들은 엄격히 말해 상업용어와 거리가 있다. 특히 'O: 경제상황'은 관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아마도 만주어의 경제상황 관련 어휘를 무리하게 이 부류에 귀속시킨 결과가 아닌지 추측해 본다.

#### IV.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풀이

이 장에서는 《同文類解》 상업어휘 중 현대중국어의 용법과 다르거나 대형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또는 난해한 어휘를 풀이할 것이다. 우선 이 범위에 속하는 단어를 제시하기로 한다.

價直, 價相等, 價賤, 狠賤, 吆喝着賣, 補錠, 兌換, 貫, 雇了, 賒着來, 盤費, 工錢, 利錢, 月利錢, 息利, 丟利, 撚鬪, 均勻, 衆共分, 對半分開, 賺吃, 按人派分, 減多增損, 造化, 大造化, 還當, 代徵, 放債, 出債, 文契, 做保人, 還償, 抵

兌還償, 產業, 富盛, 福分, 充積, 糊口, 敗

이 어휘들 중 價直, 雇了, 月利錢, 對半分開, 還當, 文契 등은 《譯語類解·補》에 출현하며, 필자의 즐고(2011)에서도 풀이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 보충하여 풀이하기로 한다.

‘價直’에 대해 《譯語類解·補》에서는 ‘값알맞다: 價相等’이라 하였다. 이 풀이에 따르면 ‘價直’는 ‘가격이 알맞다’의 의미로 쓰인 주위구조이다. 《譯語類解·補》의 풀이에 중국어로 ‘價相等’이라 한 것은 아마도 《同文類解》의 표제어인 ‘價相等’을 동의어로 보아 풀이말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어휘는 후대에 ‘價值’로 자형이 바뀐다.

‘雇了’는 ‘세내다’로 풀이하고 있고, 《譯語類解·補》에서는 ‘삭내다: 賃了’로 풀이하고 있다. 《譯語類解·補》의 풀이에 따르면 ‘雇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건물, 물건 따위를 ‘賃了’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價直’-‘價相等’)로 《同文類解》의 독립된 두 표제어를 《譯語類解·補》에서는 하나의 표제어로 통일 시키고 그 아래 다른 표제어를 풀이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同文類解》의 바로 앞 표제어 ‘貫’는 ‘雇了’와 동의관계에 있는 것이다.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元代 話本 《堂春落難逢夫》: “邀了幾個朋友, 雇了一只船, 即時拜了父母, 辭別兄嫂。”가 있다.

‘月利錢’은 《譯語類解·補》에 ‘달+별리’로 풀이해 ‘매월 받는 이자’임을 알 수 있다. 《同文類解》에서는 ‘번리’로 풀이해 誤植이 아닌가 한다. 이 표제어의 원형은 바로 앞에 나오는 ‘利錢’이다. 清代 小說 《九尾龜》에 “蕭三大雖然肯借, 卻要四分起息, 先付三個月利錢, 又要打個八扣。”라는 문장이 보인다. ‘利錢’은 이보다 이른 《水滸傳》에 “宋江道: ‘只用十兩銀子去取, 再要利錢麼?’ 李逵道: ‘利錢已有在這裏了, 只要十兩本錢去討。”라는 예문이 있다.

‘對半分開’는 《同文類解》와 《蒙語類解》, 《譯語類解·補》에 출현한다. 《同文類解》와 《譯語類解·補》의 우리말 풀이는 ‘분반히다’로 동일하다. 《漢語大詞典》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대형코퍼스에 《二刻拍案驚奇》: “家事對半分開, 各自度日。(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 살아간다.)”라는 예문이 보인다. 현대중국어의 용례로는 “去外皮的刺, 仙人掌果對半分開. 果肉是鮮紅色的. 果汁也是鮮紅.”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으며, ‘반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還當’은 《同文類解》와 《譯語類解·補》에 각각 ‘전당무루다’와 ‘전당므르다’로 풀이했다. 즉 전당잡힌 물건을 돈으로 돌려주고 찾는 것을 말한다. 清代 小說 《儒林外史》에 “那四個人慌了手脚，寓處攜一攜，只得四五件綢緞衣服，還當得幾兩銀子，其餘一無所有。”라는 예문이 보인다.

‘文契’는 ‘명문’으로 풀이했고<sup>12)</sup>, 《譯語類解·補》에서는 ‘문서’라 했다. 현대국어 사전에서 ‘명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풀이하고 있다. ‘文契’는 매매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로 《後漢書》에 이미 보인다(“其素所假貸人間數百萬，遺令焚削文契.”). 한편 《漢清文鑑》에서는 ‘文約’으로 교체되었다. ‘文約’의 예문도 《後漢書》에 보인다(“若乃文約之所沾漸，風聲之所周流，幾將日所出入處也.”).

다음으로 《譯語類解·補》에 출현하지 않는 새롭게 풀이하는 예들을 보기로 하자.

‘價賤’과 ‘狠賤’에서 ‘賤’은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로 현대중국어의 ‘便宜’와 동일하다. ‘賤’의 이 의미는 본래 의미(本義)이다. 《說文》에서는 “賤，買少也。”라고 했다. 《同文類解》에 보이는 반의어로는 ‘價貴’와 ‘價高’가 있다. ‘狠賤’의 ‘狠’은 현대중국어 ‘很’과 같다. 이러한 ‘狠’의 용법은 이미 《西遊記》에 보인다(這家子遠得狠哩! 相去有五七千裏之路.).

‘吆喝着賣’는 《漢清文鑑》에 ‘吆喝’로만 되어있고, 《譯語類解·補》에는 ‘嚶嚶賣’(웨여프다)라고 하였고, 《方言集釋》에는 ‘嚶吆賣’라하여 다 동일한 표제임을 알 수 있다. 《同文類解》의 우리말 풀이는 ‘위겨프다’라 하였다.吆喝는 《漢語大詞典》에 수록되지 않았고, 《漢典》에는 ‘高聲呼喝(큰 소리로 외치다)’로 풀이하고 《西遊記》: “一齊吆喝道: ‘走了這猴精也! 走了這猴精也!’”와 《儒林外史》: “就把這句話哭著，吆喝醒了; 把你爺也嚇醒了。”를 예문으로 들었다. 동의어로는 ‘麼喝’와 ‘嚶喝’가 있다. 여기에 보이는 유해류 역학서에 보이는 ‘吆喝’, ‘嚶嚶’, ‘嚶吆’는 근대중국어 동원사로 볼 수 있다.

‘補錠’은 《漢語大詞典》 등의 대형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同文類解》에서는 ‘더엄’으로 풀이했다. ‘더엄’은 현대국어 ‘덤’의 방언(강원, 충북, 함북)형이다.<sup>13)</sup> 한

12) 한자로는 ‘明文’이라고 하며, 중국어 동의어로는 ‘明條’가 있다.

편 《譯語類解》의 ‘瑣說’門에는 ‘補定’이라는 표제어가 보이며 ‘흥정에 모즈란 것 칩 오다’라고 풀이한 것으로 보아 ‘補錠’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용례로는 박재연 교수의 《중조대사전》(2002, 제1권443)에서 《朴通事》를 인용하였다(都是接頭補定麼).

‘兌換’의 풀이는 ‘맞고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의 ‘바꾸다’의 의미는 물건 간에 혹은 화폐와 물건 간의 교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에서는 주로 서로 다른 화폐 간의 교환을 의미한다.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初刻拍案驚奇》: “隨同衆人一齊上去, 到了店家交貨明白, 彼此兌換, 約有半日光景。”을 들 수 있다.

‘賒着來’는 비록 ‘동사+조사+조사’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同文類解》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譯語類解·補》의 買賣문에서는 ‘賒賬:외자사장’을 수록하였으며, 《同文類解》보다 먼저 간행된 《譯語類解》의 瑣說門에 ‘賒者來: 외자내다’라고 되어있다. 《同文類解》의 풀이도 《譯語類解》의 그것과 같아 아마도 여기에서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盤費’는 여비 또는 비용의 의미를 표시하는 근대중국어 어휘이다. 《蒙語類解》에서는 ‘盤纏’으로 수정되었다. 여비의 의미로 쓰인 예는 《五代史平話》: “名既不成, 利又不遂, 也只是收拾起些個盤費, 離了長安。”가 있고, 비용이라는 의미의 예는 《京本通俗小說》: “怕日久歲深, 盤費重大。”가 있다.

‘工錢’은 ‘노임’, ‘임금’의 의미이고 《同文類解》에서는 ‘슈공’으로 풀어 수공(手工: 물품을 만드는 품삯)의 뜻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예로는 《紅樓夢》: “拿一千兩銀子來, 只怕也沒處買去。什麼價不價, 賞他們幾兩工錢就是了。”가 있다.

‘息利’는 《同文類解》에서 ‘변리느다’로 풀이해 ‘변리가 늘어남’을 나타내며, 변리는 앞에서 이미 보인 ‘月利錢’의 풀이말이므로 결국은 ‘利錢(이자)’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현대중국어 ‘利息’의 同素逆序詞이다. 이 단어는 이미 唐代에 출현했다.白居易의 《息游惰策》에 “當豐歲則賤糶, 半價不足以充緡錢; 遇凶年則息利倍稱, 不足以償逋債。”이라는 예문이 보인다.

‘丟利’는 ‘리업다’로 풀이해 ‘이윤이나 이자가 없음’을 나타낸다. 《康熙字典》에서 ‘丟’는 《揚子·方言》을 인용해 ‘一去不還也.’으로 풀었다. 이 표제어는 《漢語大詞典》에 보이지 않는다.

13)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64107&supid=kku000081431#kku000081431> 참조.

‘攔鬪’는 ‘잡이지르다’라고 풀이했다. 여기서 ‘잡이’는 바로 제비(제비뽑기의 ‘제비’)이다. 그러나 ‘攔’은 상용자가 아니며 상용자형으로는 ‘拈’이 있다. 박재연 교수의 《중조대사전》(2002, 제5권111)에는 ‘拈鬪’의 용례를 《訓蒙字會》, 《譯語類解》, 《삼국지통속연의》 등에서 다수 들고 있다. ‘攔’이 잡다, 집다의 뜻으로 사용된 비교적 이른 용례는 《三國演義》의 “成濟攔戟直奔輦前。”이라는 예문에서 볼 수 있다. ‘攔鬪’는 《漢語大詞典》에 보이지 않으며, 특이하게도 중국 四川 지역의 한 블로거가 올린 문장에 용례가 보인다: “我倆就去割草砍柴, 收工時, 把柴捆成兩挑, 那時, 隊里分東西, 伙食團分菜, 都要拈鬪, 以示公平, 我倆也照樣辦。”<sup>14)</sup> 이 예문에서는 바로 분배의 공정함을 위해 ‘攔鬪’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표준어로는 ‘抽籤’이라고 한다.

‘均勻’도 표제어의 배열로 볼 때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이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문은 《初刻拍案驚奇》: “只見那爲頭的道: ‘某件與某人, 某件與某人’連唱了來人的姓名, 又有嫌多嫌少道: ‘分得不均勻!’相爭論的, 半日方散去。” 즉 ‘分得不均勻!’이라고 했으므로 분배에서 균등하게 하다는 의미이다.

‘衆共分’의 풀이가 ‘여러히는호다’로 된 것으로 보아 ‘여럿이 나누다’의 의미이다. ‘衆共’은 대형 사전에 보이지 않는다. ‘衆共’은 아마도 규범적인 어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賺吃’는 《同文類解》에서 ‘저허먹다’로 풀이하고 있고, 《譯語類解·補》에서는 ‘吮吃’라는 표제어에 ‘저허먹다’라고 풀이해 사실 이 두 표제어는 동일한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賺’과 ‘吮’의 차이이다. 왜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다르게 채록했는가? 《譯語類解·補》의 편집자들은 《同文類解》의 ‘賺吃’를 버리고 굳이 ‘吮吃’라고 했는지? 아마도 이 문제는 兩書가 채록한 목표 언어의 차이에서 이러한 취사선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 한편 《蒙語類解》에서는 ‘賺吃’ 대신 ‘貝+巽吃’를 수록했다. 그리고 《廣才物譜》<sup>15)</sup>에서는 ‘賸喫’이라고 했다. 아마도 ‘賺’, ‘貝+巽’, ‘賸’ 등 세 글자는 이체자 혹은 속자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풀이말의 ‘저허먹다’는 ‘떼먹다: 돈을 꾸고는 갚지 않다’의 의미이다.

‘按人派分’에서 ‘派分’을 ‘配分하다’로 보면 의미는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派分’

14) <http://tieba.baidu.com/p/1035403607> 참조.

15) 박재연 《중조대사전》, 선문대학출판부, 2002, 제5권 299쪽 참조.

은 대형사전이나 현대중국어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어의 규범적인 표현은 ‘分配’이다.

‘減多增損’의 용례나 의미는 잘 검색되지 않는다. 좋은 착안점은 바로 《同文類解》의 풀이인 ‘折長補短’이다. ‘減多增損’은 말 그대로 ‘많은 것[多]을 줄이고[減], 손실[損]에 더해준다[增]’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표제어도 대형사전이나 현대중국어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造化’와 ‘大造化’는 글자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상언어휘와 관련시켜본다면 우선 풀이 말인 ‘스망’을 조사해야 한다. ‘스망’은 현대어로 ‘사망’이고 한자어로는 ‘事望’이다. 그 의미는 ‘일이나 사업의 좋은 징조나 전망’이다. 이 의미에 부합하는 용례로는 《紅樓夢》: “寶玉果然是有造化的, 能彀得他長長遠遠的伏侍他一輩子, 也就罷了。”를 들 수 있으며, 동의어로는 ‘福氣’, ‘幸運’ 등이 있다. 마침 《同文類解》의 ‘大造化’의 풀이에 ‘又多幸’이라고 한 것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다.

‘代徵’은 흥미있는 표제어이다. 이것은 淸代의 세무용어로 ‘대신 징수하다’하는 의미를 가지며, 경작자가 외지인일 때 땅의 소재지 정부에서 경작의 거주지 정부에게 대신 징수하게 하는 제도이다.<sup>16)</sup> 《同文類解》에서는 ‘딴예물리다’라고 하여 ‘대신 물리다’의 의미이어서 앞의 淸代 세무용어와도 부합한다.

‘放債’와 ‘出債’는 각각 ‘빚주다’, ‘빚내다’로 풀이해 ‘빚을 주고, 빚을 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放債’란 돈을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행위이며,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初刻拍案驚奇》: “當初是你每衆人總承我這樣好主顧放債, 本利絲毫不曾見面, 反又要我拿出銀子來。”가 있다. ‘出債’는 일반적인 사전에 보이지 않는다. ‘放債’의 반의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做保人’은 ‘보두다’로 풀이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方言類釋》에는 ‘做保’가 표제어로 올라있고, ‘보두다’라 한 것을 보아 《同文類解》의 ‘做保人’을 ‘做保’로 개수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재연 교수의 《중조어대사전》(2002, 제8권 1078)에서는 ‘課目’이라는 略號의 서적에서 ‘做保’: ‘보인되다’라는 풀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做保人’는 바로 우리말의 ‘보인 서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做保’의 비교적 이른 용례는 元代의 《小尉遲》에 보인다(某想敬德老將

16) <http://baike.baidu.com/item/%E4%BB%A3%E5%BE%81/13826861?fr=aladdin>  
참조.

軍, 一片忠心, 豈有反叛之事, 我須索與他做保去來。)

‘還償’은 《蒙語類解》에서 ‘還債’로 교체되었고, 풀이에는 ‘빚갚다’ 즉 ‘빚을 갚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元代 《伍員吹簫》: “少不的冤債你還償。”이 있다. 사실 ‘還償’은 현대중국어 ‘償還’의 同素逆序詞이다.

‘抵兌還償’에서 ‘抵兌’는 중국어 사전에 ‘抵換’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교환의 의미가 아니다. 明代 《條陳薊鎮補兵足食事宜》: “且京師之馬, 不必給薊; 薊鎮之馬, 免於解京。互相抵兌, 兩爲便益。”이나, 清代 《福惠全書·升遷·清錢糧》: “少則代賠, 多則抵兌別役。”의 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등가의 대체물로 교환하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抵兌還償’의 의미는 ‘등가의 대체물로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產業’은 풀이에 ‘가업’이라 하여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와 거리가 멀다. 고대에서 ‘產業’의 일반적인 의미는 오히려 돈, 동산, 부동산 따위의 재산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동의어로는 家當, 資產, 財產, 物業 등의 어휘가 있다. 비교적 이른 예로는 《史記·高祖本紀》: “始大人常以臣無賴, 不能治產業。”이 있고, 근대중국어 시기의 예로는 《初刻拍案驚奇》: “他乘我手中窘迫, 貪圖產業, 百般勒捐。”을 들 수 있다.

‘富盛’은 ‘富盛하다’로 풀이해 당시 우리말 한자어와 동일하다. 《漢語大詞典》에서는 현대문을 들고 있지만 이미 중국의 清代 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사전에서의 풀이는 ‘富裕昌盛。常特指財富或物產豐裕。’라 하여, ‘부유하고 창성하다는 말의 줄임형으로, 보통 특히 재산이 풍족함’을 가리킨다.

‘福分’은 우선 ‘분복’으로 풀이하여 우리말 한자어에서는 同素逆序詞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의어로는 ‘福氣’, ‘福澤’, ‘分福’, ‘福緣’ 등이 있으며,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元代 《後庭花》: “怎敢想望這個福分, 但留得性命, 便死生難忘也。”가 있다. 한편 우리말 사전에는 ‘分福’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라 했다.

‘充積’의 풀이는 ‘家業充滿하다’라 하였다. 여기서 ‘家業’이란 앞에 나왔던 ‘產業’과 같은 말로 ‘집안의 재산’을 지칭한다. ‘充積’이 ‘충만하다; 가득차다’의 의미로 쓰인 비교적 이른 예문은 《後漢書·劉瑜傳》: “今女嬖令色, 充積閨帷。”이며, 宋代 蘇軾의 《代張方平諫用兵書》: “怨氣充積, 必有任其咎者。”도 있다.

‘糊口’는 현대중국어의 상용사이지만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



다. ‘養家糊口’라는 성어에 더 많이 보이는 ‘糊口’는 《康熙字典》에 “《篇海》: ‘煮米及麵爲粥。’ 《宋正考父鼎銘》: ‘饘于是, 粥于是, 以糊余口。’”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죽을 끓여 먹이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자신이나 가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전화된 것이다. 우리말 속어로는 ‘입에 풀칠한다’는 말과 가장 부합된다. 한편 《同文類解》의 풀이에는 ‘糊口하다’라 하여 당시 우리말 한자어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敗’는 겉으로 보기에 상업어휘와 상관이 없다. 본고 제3장의 분류대로 보면 이 어휘는 바로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있다. 앞의 ‘富盛’이 가산의 풍성함을 나타내지만 ‘敗’는 그 반대의 상황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여기의 ‘敗’는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파산했다’는 의미임에 분명하다. 《同文類解》의 풀이는 ‘탕패하다’하였으므로 ‘탕패’가 바로 ‘蕩敗’임을 알 수 있다. ‘蕩敗’는 ‘破蕩敗業’의 준말이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破家蕩產’이라고 말한다.

## V. 나오는 말

《同文類解》는 1748년 사역원에서 편찬한 만주어 분류어휘집이다. 조선시대의 다른 유해류 역학서들과 마찬가지로 표제어를 당시의 중국어 구어로 설정함으로써 각 판본간의 비교도 가능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同文類解》를 대상으로 그 중의 71개 상업어휘를 대상으로 수록어휘의 분포, 표제어의 특징, 판종 간의 비교 연구 및 어휘풀이를 진행했다.

2장에서는 《同文類解》의 선행연구를 중국과 국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국내 자료 위주인 반면 중국이나 국내의 만주어 연구자들의 성과 소개를 통해 원대 이후 이미 다량의 다국어 분류사전이 출간되었으며, 특히 청대 이후 만주어 대역사전의 유입으로 《同文類解》와 같은 중국어 이외의 유해류 역학서가 출현함을 보았다. 그리고 《同文類解》의 표제어가 당시의 중국어 구어를 반영하고 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에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를 이어서 확장한 것이 골자이다.

3장에서는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분포를 ‘표제어 분류’, ‘다른 유해류 역학서와

의 상업어휘 비교', 《同文類解》의 상업어휘와 분류체계' 등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우선 '표제어 분류'에서는 음절의 갯수에 따른 분류를 진행했고, 그에 상응하는 해석을 추가했다. 다른 유해류 판종간의 대비에서는 《同文類解》가 후대의 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록어휘의 비교를 통해 究明하고자 했다. 이 비교에서는 《蒙語類解》가 가장 전면으로 영향을 받았고, 《譯語類解·補》, 《方言類釋》, 《漢清文鑑》 등은 10% 이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 분류체계의 문제에서는 필자가 《譯語類解》의 연구를 통해 구성한 분류체계로 《同文類解》 전체 상업어휘를 귀납하였다. 그 결과 1. 《譯語類解》의 상업어휘와 비교할 때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B: 시장',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 'E: 상업용 운반 수레', 'I: 거래', 'J: 상품의 산지', 'K: 상품에 대한 평가', 'L: 세금이나 중계료' 등 8개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표제어는 없었고, 새로이 'N: 전당', 'M: 분배', 'O: 경제상황' 등의 어휘가 다수 확장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 《同文類解》 상업어휘의 풀이는 우선 《譯語類解·補》와 겹치는 표제어를, 다음으로 《譯語類解·補》와 관련이 없는 어휘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풀이방법은 기존의 《漢語大詞典》 등과 같은 대형사서의 의존을 탈피해 일차적으로 《同文類解》의 풀이에 근거하고, 다음으로 다른 유해류 역학서를 활용하며, 나아가 조선시대 근대중국어 자료를 집대성한 박재연 교수의 《중조대사전》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점은 어휘 풀이 방법에서도 일정한 의의가 부여될 수 있다.

향후 작업은 《蒙語類解》, 《韓漢清文鑑》, 《倭語類解》, 《華語類抄》 등 아직 다루지 않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추진할 것이다. 본 연구가 우리의 중요한 문헌 자산인 유해류 역학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 조성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 【參考文獻】

1. 類解類 譯學書 原典  
《同文類解》 서울, 홍문각, 1995(洪允杓 해제).  
《譯語類解》·《譯語類解·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4(李基文 해제).

- 《方言集釋》 서울, 《일본학》 제7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 《韓漢清文鑑》 서울, 연희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56(閔泳珪 해제).
-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捷解蒙語》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宋基中 해제).
- 《四本對照倭語類解》 서울, 《(倭語類解) 1781, 《(和語類解) 1837, 《(日語類解) 1912, 《(朝鮮偉國字彙) 1838》, 제이앤시, 2004(鄭光 해제).
- 《華語類抄》 아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全基廷 해제).
- 《漢語抄》 서울, 홍문각, 1955(洪允杓 해제).

## 2. 研究書, 論文

- 江橋 〈康熙《禦製清文鑑》選詞特點舉要〉, 《滿語研究》, 2001年 1期.
- 姜信沆 《韓國의 譯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유범, 김미미 〈만주어 사전 구축을 위한 《동문유해(同文類解)》의 활용 가능성 모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62권, 2014.
- 梅家駒 等編 《同義詞詞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3.
- 閔泳珪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 同文類解 解題〉, 《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同文類解》,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영인, 1956.
- 박재연 《중조대사전》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2.
- 성백인 〈영인본 동문류해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4권, 1970.
- 성백인 〈초기 만주어 사전들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52권, 1986.
- 성백인 〈초기 만주어 사전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2권, 1990.
- 성백인 〈헌존 사역원 청학서와 그 연구〉,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4권, 1994.
- 성백인, 김주원, 정계문, 고동호 〈御製清文鑑의 版本 研究〉,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18권, 2008.
- 성백인 〈《어제청문감》의 만주어〉,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10권, 2000.
- 양오진 〈早期 中國語辭典의 種類와 特徵에 對하여〉, 《中國學報》 Vol.50, 2004.
- 연규동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比較: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17, 1995.
- 연규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6.
- 연규동 〈漢字 特殊 字形 研究 -類解類 譯學書를 中心으로-〉, 《言語研究》 Vol.15, 1997.
- 연규동 〈近代國語의 낱말밭(Semantic Field) - 類解類 譯學書의 部類排列順序를 中

- 心으로), 《言語學》, Vol.28, 2001.
- 연규동 〈만주어의 친족 명칭 연구〉,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16권, 2006.
- 연규동 〈만주어의 색채어〉, 한국알타이학회, 《알타이학보》 22권, 2012.
- 烏雲高娃 〈元明清蒙漢合璧辭典及其對朝鮮“類解書”的影響〉, 《民族研究》 2015年4期, 2015.
- 王洪湧 《先秦兩漢商業詞彙、語義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6.
- 遠藤光曉 等編 《譯學書文獻目錄》 서울, 박문사, 2009.
- 林春梅 〈關於《同文類解》的詞彙體系〉, 《語文學刊(外語教育教學)》, 2012年09期, 2012.
- 林毅 〈《同文類解》漢譯語詞研究〉, 《內蒙古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年06期, 2011.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鄭光 《譯學書研究》 서울, 제이앤씨, 2002.
- 鄭光 〈類解類 譯學書에 對하여〉, 《國語學》 第7輯, 1978.
- 春花, 王三月 〈論清代滿蒙文大型“分類詞典”的發展演變〉,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年03期, 2006.
- 姜勇仲 《《朱子語類》詞彙研究》, 中國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6.
- 姜勇仲a 〈釋“鑿糟”〉, 《周口師範學院學報》 Vol.1, 2008.
- 姜勇仲b 〈語彙系統 研究와 中國歷代 商業語彙 研究方法〉, 《中國文學研究》, Vol.36, 2008.
- 姜勇仲 〈朝鮮時代 類解類 譯學書 商業語彙 收錄樣相과 對比〉, 《中國言語研究》, Vol.30, 2009.
- 姜勇仲a 〈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 - 《老乞大》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 연구》, Vol.12, 2010.
- 姜勇仲b 〈《譯語類解》‘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 《中國文學研究》, Vol.41, 2010.
- 姜勇仲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연구〉, 《中國文學研究》, Vol.45, 2011.

### 【中文提要】

《同文類解》是1748年由朝鮮時期司譯院出版的“漢語-韓語-滿(洲)語”分類詞典。《同文類解》和其他類解類譯學書一樣，以當時的漢語口語詞作為詞條而

編輯的。本文以《同文類解》“買賣”部類的七十一個商業詞彙爲對象，進行詞語分類、考釋以及不同類解類譯學書的比較。

在第二章分別介紹了以往的研究和研究方法。以往的研究也可以分成中國和韓國。中國學者研究了元代以後的大型雙語辭書的產生過程以及《同文類解》的特徵。韓國學者主要討論《同文類解》所受影響的辭書和詞條比較。但是用《同文類解》的漢語詞條作研究的至今很少見。

第三章討論了“詞條的分類”、“和其他類解類譯學書的比較”以及“《同文類解》商業詞彙的分類體系”。“詞條的分類”根據音節的數目進行分類，並作了簡單的解釋。“和其他類解類譯學書的比較”中得到了如下結論：留下影響最多的就是《蒙語類解》(漢語-韓語-蒙古語分類詞典)，《譯語類解·補》，《方言類釋》，《漢清文鑑》也接受了10%以上的《同文類解》詞語。“《同文類解》商業詞彙的分類體系”中得知有關“典當”、“分配”、“經濟情況”等的詞語出現得比較明顯。

第四章進行了三十九個詞語的考釋。這些詞語有的疑難詞語，有的字面普通而意義難辨的詞語。考釋方法採取積極利用其他類解類譯學書以及朴在淵教授的《中朝大辭典》。

希望往後的研究多留意朝鮮時期司譯院出版的類解類譯學書，以及這些分類詞典的漢語口語詞條。

### 【主題語】

《동문류해》, 상업어휘, 분류, 풀이, 유해류역학서

《同文類解》, 商業詞彙, 分類, 考釋, 類解類譯學書

DongMunYuHae, Commerce Vocabulary, Classification, Explanation, Classified Lexicographical Books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

